

 <p><b>안 그래픽</b> 인쇄 · 싸인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578-1426 2930 Old Norcross Rd #B-500 Duluth, GA 30096</p>	<p><b>리 장례식장</b> Lee's Funeral Home &amp;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p>	<p><b>PIWC Group Agency</b> 자동차, 집, 사업체, 중입원 상해 보험 장인욱 베드로 404-644-8658</p>	<p><b>SB 건축&amp;철공</b>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p>	<p><b>오즈 냉 동</b>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p>
<p><b>AAA 이창호 보험</b> Insurance Checklist <b>메디케어</b> 신청, 변경 도와드립니다. 이창호 바오로 678-910-0884 cclee@acg.aaa.com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p>	<p><b>Suwanee</b> ORTHODONTICS 스와니 678-482-9434 (주말 예약가능) <b>교정/소아 치과</b></p> <p><b>DUO</b> ORTHODONTICS Tucker 770-939-1280 전문의 김범수 니콜라오 김보근 알폰소</p>	<p><b>Brighter Smiles</b> 광상범 이수산나 <b>잔스크릭 치과</b> www.brsmiles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30024</p>	<p><b>미소 치과</b>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p>	
<p><b>ALFONE LIFE</b> FINANCIAL &amp; INSURANCE SERVICE <b>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b>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p>	<p><b>RIVERBEND</b> Tire &amp; Auto Service, Inc. <b>SONAMOO</b>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p>	<p><b>FARMERS INSURANCE</b> <b>로렌 배 보험 (모니카)</b>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p> <p><b>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b>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p>		
<p><b>JOYNUS CARE</b> <b>간병인 수시 모집</b>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p>	<p><b>만 천 흥</b> 명품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p>	<p><b>배용자 루시아 보험금융</b>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p>		
<p><b>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b> <b>김옥경 에밀리 부동산</b> M. 770-912-8282 O. 404-843-2500</p>	<p><b>kw KELLERWILLIAMS.</b> <b>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b> Juliana OH 678-908-4945</p>	<p><b>Peachtree Physical Therapy</b> <b>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b>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정토니 안토니오</p>		
<p><b>SINCE 1999 VINEYARD REALTY</b>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조셉 김 678-361-6230</p>	<p><b>Pinehill Realty</b> <b>조앤리 아네스 부동산</b>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p>	<p>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b>더조은 척추</b>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p>		
<p><b>정승욱 미카엘 변호사</b>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770-495-9994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p>	<p><b>오약국</b>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오민환 파비아노</p>	<p><b>주변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씀합니다</b> <b>기뻐하십시오</b> <b>어느 누구의 노력도 마음을 모든 사랑에게 보아십시오</b> 필리 4.4</p>		
<p><b>교통사고 상해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b>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p>	<p><b>Fairway Home Loan</b> *주택융자 *상업융자 <b>최윤석 융자</b>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p>	<p><b>주변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씀합니다</b> <b>기뻐하십시오</b> <b>어느 누구의 노력도 마음을 모든 사랑에게 보아십시오</b> 필리 4.4</p>		
<p><b>GIFTS</b>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목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p>	<p><b>TOP 조정</b> Lawn Maintenance <b>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b>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p>	<p><b>주변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말씀합니다</b> <b>기뻐하십시오</b> <b>어느 누구의 노력도 마음을 모든 사랑에게 보아십시오</b> 필리 4.4</p>		

# 순교자 주보

**이탈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7월 9일

NO.2207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SCAN ME




**연중 제14주일**

성 가  
입당: 46  
봉헌: 217  
성체: 174/171  
파견: 47

**제1특서 즈카르야 예언서 9,9-10**  
보라, 너의 임금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너에게 오신다.

**제2특서 로마서 8,9,11-13**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복음 판호성**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 11,25-30**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회답송 

저의 임금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오 11,25-30)

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① 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7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28 ② 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③ 을 주겠다.

29 나는 마음이 ④ 하고 ⑤ 하니 내 멍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30 정녕 내 ⑥ 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30)

멍에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라고 되어있습니다. 말 못하는 말이나 소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긴 하겠지만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POWER를 얻는 없어서는 안 될 TOOL인 것이죠. 비유를 들어 쉽게 가르쳐 주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다”.

저는 어렸을 때 유교적 제사 예식이 매우 싫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 놓는 순서, 큰절할 때 손을 얹는 방식, 한복 대님 매는 방식, 술 따르는 방식 등등 서투러 잘못하면 쌍놈이라고 야단 맞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왜 어른들은 이런 부질없는 것에 영혼을 빼앗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 가니까 머리를 뺨뺨 깎아야 했습니다. 규율부 학생 혹은 체육 선생님이 수시로 검사합니다. 머리카락 길이 규정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길이가 3mm보다 길면 바리깡으로 머리 한 가운데에 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Penalty를 내는 셈이죠. 관공서나 은행 관련 일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아리까리한 ISSUE가 있을 경우 일을 되게 하기보다는 규정을 내세워 안되는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모릅니다. 현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다고합니다. 사사건건 참견받고 감시받으면서 살아야 했으니 숨이나 제대로 쉬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 오릅니다. 법과 규정이란 것은 쉽게 말해 “뭘뭘 --- 하지말 것”을 정해 놓은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힘과 돈과 종교계를 진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대사제들, 율법학자들이겠지요. 사회를 통제하기엔 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법과 규정을 어기면 벌을 주면 되니까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에게 가히 세기의 이단아인 셈이죠. 예수님 눈에는 모든 율법과 규정이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며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로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고통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울러 살면서 짓는 죄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용서받고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 | 성 찰 |

당신의 어깨에 짊어진 멍에는 예수님이 만들어준 멍에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만든 멍에 입니까?

####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 ① 철부지
- ② 고생
- ③ 안식
- ④ 온유
- ⑤ 겸손
- ⑥ 멍에

#### 하늘마음 < 마태오 11,25-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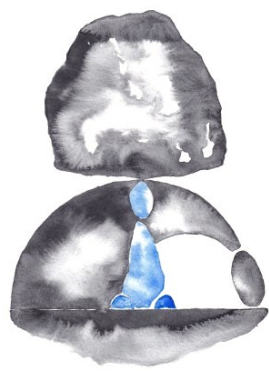
배영길 베드로 신부

혹시라도, 이 짐을 우리 아이들이 질까 하여.

먼저 마음이 가고, 먼저 몸이 갑니다.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마음이 있습니다.



성 루가 의료 봉사회 진료회

7월 2일 (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소성당에서 진료회가 있었습니다.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용중인 약병을 가져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천사 사진반 김밥 판매



성모회 기금 마련 판매



성모 신심 미사

7월 1일 (토) 낮 12시 미사는 성모 신심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 5  
식별의 요소: 열망

“삶을 이끄는 열망은 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의 교리 교육을 통해 우리는 식별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별의 요소들 가운데 기도와 자기 인식, 곧 기도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식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또 다른 요소, 말하자면 식별의 “재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열망(desiderio)’입니다. 사실, 식별은 탐색의 한 형태입니다. 탐색이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종류의 앓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성 지도자들은 이를 “열망”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결코 완전한 성취에 도달할 수 없는 충만에 대한 그리움이며,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열망은 순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열망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데시데리오(desiderio)’는 매우 아름다운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꽤 흥미롭습니다. 곧, 라틴어로 ‘데-시두스(de-sidus)’는 문자 그대로 “별의 결핍”을 뜻합니다. 따라서 열망은 별이 없는 것, 곧 인생의 길잡이 별이나 삶의 기준점이 결핍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통과 결핍,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선에 도달하려는 간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열망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나침반이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혹은 앞으로 나아가며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아무것도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 아마도 병들거나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일 것입니다. 열망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가만히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열망은 우리 실존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와 같습니다. 곧, 우리는 마실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탐색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여 그러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합니다. 장애물과 실패는 열망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열망을 더욱 생생하게 만듭니다.

순간의 염원이나 감정과 달리 열망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속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가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 학업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생의 몇 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것에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는 다른 학업 과정뿐 아니라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의사가 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열망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며, 여러분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가치는 ‘매력적’일 때 아름다워지고 더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자주 당사자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는 게 인상적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병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벳자타 못 가에서 수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물에 들어갈 적당한 때를 포착하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요한 5,6) 어쩌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사실 중풍병자의 대답은 치유에 대한 기이한 저항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그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의 마음을 명료하게 하고,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였습니다. 곧,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이 자기 대신 못 속에 넣어줘야 하는 “중풍병자”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10월 12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알현을 통해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 여정을 이어갔다. 교황은 “열망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열망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가만히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생각하지 말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들것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중풍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네, 그럼요, 원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은 환상과 같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려고 한걸음도 내딛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서른여덟 해나 앓고 있는 그 사람이 항상 투덜거리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 물이 출렁이면서 움직일 때 – 기적의 때를 말합니다 –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저보다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늦습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불평은 독, 영혼의 독, 인생에 독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불평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가정에서 불평하고, 부부가 서로 불평하고, 한 쪽이 다른 쪽을 불평하고,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사제들이 주교에게 불평하고, 주교들은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 그래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투덜거리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불평불만은 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망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공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지속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다”고들 말하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술한 야망이나 겉으로 좋아 보이는 지향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실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싶어요. 물론 하고 싶죠. (...)”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열망을 위축시키고’ 끊임없는 만족을 부추기는데, 결국 대부분은 순간의 욕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열망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술한 제안, 프로젝트, 가능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

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지 못하게 할 위험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잠시 생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내려놓나요?” “아니요.” 항상 자기 내면의 열망이 아닌 바깥 이야기 쪽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세간의 이야기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망은 이런 식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욕망에 따라 살고 순간의 욕망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열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자신들의 깊은 열망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거나 알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온갖 시도와 방편 사이에서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변화들은 이론상으로 바라기는 하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결코 구현되지 않으며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내려는 굳건한 의지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예리코의 눈먼 이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마르 10,51)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마침내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분께 대한 깊은 열망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의 열망을 알게 하소서. 저는 열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체화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엄청난 은총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이 저희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그분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간절히 나누고자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vaticannews.va/>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7월 2일 (연중 제13주일)

교중미사(10:30am)...	298명	주일헌금 .....	\$ 4,445.00
아침미사(08:30am)...	100명	교무금 .....	\$ 7,905.00
영어미사(12:15pm)...	36명	감사헌금 .....	\$ 110.00
청년미사(05:30pm)...	56명	청소년 기금 .....	\$ 0.00
<b>미사참여 총 .....</b>	<b>490명</b>	<b>성물방 .....</b>	<b>\$ 195.00</b>

교무금 명단

강규상 (7)	김희연 (7)	배정울 (6)	윤석진 (7)	이순섭 (6)	최동순 (7)
김영애 (6)	나창섭 (7)	배정희 (7)	이건수 (7)	이원선 (7)	최순례 (7)
김구환 (7)	민수종 (7~8)	서용원 (7)	이광자 (6)	이종길 (7)	최인영 (7)
김루시아 (7)	박미셀 (7)	서인원 (6~7)	이광춘 (7)	장민재 (7)	최준태 (7)
김영길 (7)	박성관 (7~12)	손경란 (4~7)	이미현 (7)	장춘자 (7)	한준하 (6)
김영철 (7)	박연순 (5)	손영덕 (7)	이복화 (7)	정예근 (7)	홍서훈 (7)
김원봉 (7)	박영자 (7)	안근순 (7~12)	이봉조 (7)	정재희 (7)	
김재경 (6)	박재석 (6)	오정환 (7)	이상엽 (7)	조기영 (7)	
김정수 (5~6)	박정미 (7)	오현정 (5~7)	이상용 (7)	조소춘 (7)	
김중환 (7)	박지은 (5~8)	윤기태 (7)	이석균 (7)	천정수 (5~7)	

현재까지 성당 지봉교체를 위한 기부금 모금 현황

내 용	금 액
기존 수익금	\$ 125,049.71
7월 2일 기부금	\$ 900.00
<b>합 계</b>	<b>\$ 125,949.71</b>

7월 2일 기부자명단

김정애  
방영택  
서재욱

▶ 성당 지봉교체를 위한 여러 활동 봉사자분들과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태규	박종흠	심충섭	이복화	조보현
강성태	김향순	박찬구	심호웅	이봉조	조성환
강용조	김현길	박평하	안금환	이석균	조소춘
고창민	김호수	방영택	안승범	이성철	지승남
곽흥배	김홍섭	배광욱	양경직	이수진	차영수
김 훈	김희연	배용자	양경환	이승구	천병호
김경숙	나창섭	배정희	양국일	이종길	최동순
김남우	남기원	백현숙	양재준	이주미	최문석
김대용	남상우	서동민	오경욱	이창호	최문영
김루시아	남현석	서미영	오규형	이준복	최양숙
김면기	문명재	서상호	오상수	이현두	최영갑
김미자	민병선	서용원	오현정	이현두	최옥란
김미혜	민수종	서재욱	왕복실	이현옥	최지남
김루시아	민주미	서혁구	원동훈	이홍규	한성인
김봉섭	박근우	석대진	원용방	이홍규	한준하
김상준	박남준	석대진	유경애	이홍철	한형인
김성강	박남철	설재규	유선아	장민재	한혜선
김세경	박두환	성정창	유성열	장해선	허민환
김영길	박두환	송종선	유영환	전홍	홍동우
김영철	박미셀	손영덕	유중현	전근선	홍서훈
김영홍	박송자	손철영	윤석진	전용희	홍영기
김원봉	박영자	송경자	윤성진	정승욱	
김일환	박재석	송무남	이건수	정용선	
김주희	박재영	송용덕	이경우	정지윤	
김진용	박정미	송창률	이동춘	정창래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1. 마스크 착용은 자율
2. 미사중 응송 가능
3. 고해성사는 사제 사무실에서
4.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5. 미사 관면이 가능한 경우(애들랜타 교구청 지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3년 7월 2일 (연중 제13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달성률 .....	67.4 %
약정액 .....	\$ 35,790.00
누계 납부액.....	\$29,775.00
금주 납부액.....	\$ 1,810.00

2023 AA 기금 납부자

강규상	김유니	박평하	이동춘	장민재
김영길	나영숙	배정희	이봉조	최준태
김용준	박정미	손영덕	이상용	
김원봉	박지현	원용방	이석균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익명 두 분

청소년 기금 Angela Fund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기재
- 2023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7/8 (토) 오후 5:30	이재돈	서현규 박주현	
7/9 (일) 오전 8:30	박미셀	윤춘호 윤영미	
7/9 (일) 오전 10:30	이경환	이국진 이정란	김아론 박시은 오준서
7/9 (일) 오후 12:15	Sara Park	장근우 양다해	박지현 박시윤
7/15 (토) 오후 5:30	김주환	이성규 신경아	
7/16 (일) 오전 8:30	서정원	최인영 남송은	김매튜 김소현
7/16 (일) 오전 10:30	김유니 스	김대용 김월수	최예은 도렉스 양다해
7/16 (일) 오후 12:15	Mary	Matthew Seo Sara Park	장재은 홍지아

본당 캘린더

7월 9일	• 차타누가 공소 미사
7월 13일	• 33일 봉헌기도 시작
7월 15일	• 주일 학교 교사 워크샵

2023-24년도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수업기간: 2023년 9월10일 ~ 2024년 3월31일

- 일시: 매주일 9:00am
- 장소: 소성당
- 접수처: 사무실
- 접수마감: 2023년 8월31일
- 문의: 나상숙 스킨라스티카 678-933-7313

유아 세례식

세례받지 않은 영유아 및 7세 미만 어린이

- 일시: 7월 15일(토) 2:30pm
- 장소: 소성당
- 문의: 사무실 770-455-1380

사회복지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교우분들이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서 방문을 원하시거나 또 주위에 방문이 필요한 교우분들이 계시면 사회복지분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2차 헌금

MISSION COOPERATIVE PROGRAM

- 일시: 7월 15일(토)/ 16일(일)

McCumming 구역 점심 판매

- 일시: 7월 9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친교실

행사 및 모임 안내

- 성서 봉사자 회의  
일시: 7월9일(일), 12:00pm/ 장소: 113호  
문의: 이숙자 크리스티나 678-665-3882
- 구리아 월례 회의  
일시: 7월9일(일), 1:00pm/ 장소: 대건 도서관  
문의: 왕희숙 미카엘라 352-359-4283
- 망치회 월례 회의  
일시: 7월9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친교실  
문의: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본당 알림

- 성가대원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이정란 안젤라 770-401-5374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알루미늄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매일 미사책 연간 구독 신청: \$80
- 2022년 주보 광고비와 2023년도 카렌다 광고비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성물방 시간: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당가능)
- 주보 관련 문의: kmccga.bulletin@gmail.com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문의: 이진화 로마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일 대건 한국학교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마르티니 성서 묵상 마태오 복음

• 기간: 4월27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 시간표

수요일	10:30am-12:00pm	소성당
목요일	10:30am-12:00pm	소성당
목요일	6:00pm-7:00pm	대성전

• 교재 구입: 친교실에서 교중미사 전 후

• 가격: 마태오 복음 \$30 | 마르코 복음 \$15

• 문의: 임혜수 404-246-8142

2023-2024년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 ~ 12학년

• 등록기간: 8/20(일) 개학일까지

• 등록비(일년): 1인 \$100/ 둘째 \$90/ 세째 \$80

▶ 개학일에 교무실로 납부

• 문의: 임해진 스테파니아 / 770-330-3036  
kmccga.youngadult@gmail.com

대건 한국학교 교사모집

• 지원자격

1. 한국 학사 학위자 또는 전문 학사 학위자
2. 미국 내 한국학교 이수자
3.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4. 한국학교 교사 경력자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시는 분, tax보고 가능하신 분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강수산나	유옥희(모니카)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영태(세례자 요한)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류영래(세실리아)	조갑득(마리아)
민병숙(라파엘라)	조경희(글라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채중현(아오스딩)
박정자(데레사)	최대일(프레드릭)
박줄리(히야친타)	최순례(아나타시아)
박평하(요한)	한창학(모니카)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3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 문의: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신자 재교육

미사의 은총

• 주제: 미사의 은총( 10주간 )  
자비를 베푸소서

• 일시: 7월9일 (일) 12:15pm - 1:00pm

• 장소: 소성당

• 문의: 이혁륜 모니카 404-518-7373

전 신자와 함께하는 일일 피정

마음, 영성 그리고 기도  
by 이재욱 세례자 요한 신부님

• 주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태오 6,21)

• 일시: 7월 15일 (토) 10:00am-3:00pm

• 장소: 대성전

• 등록: 미사 후 친교실

• 참가비: \$10 (점심제공)

• 주관: 천상 은총의 모후 꾸리아

• 문의: 왕희숙 미카엘라 352-359-4283  
김성애 레비나 678 779 1387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오늘 이쁘고, 멋있게 무료 사진 찍어드립니다

▶ 7월 9일(일)부터 매주 일요일

• 일시: 주일(아침, 교중)미사후 9:30-10:20am, 12:00-1:30pm

• 장소: 301(천사 사진반)

• 문의: 이승구 678 361-0675

• 협찬: 망치회

봉사자, 사진에 관심있는 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로스리오 평생대학 종강식

7월 16일 (일)  
미사 후 친교실

• 해피 쿠킹 클래스에서 점심 판매

• 뜨게질 클래스의 패션쇼

• 난타, 사물놀이, 고전 무용, 라인댄스

• 하모니카 연주, 키보드 연주, 싱어송

• 문의: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